

미-중 시한부 휴전...협상 '힘로'

결 다른 양국 성명...美 '상호방문' 中 '90일 한시' 빠져 추가 관세 중단·무역협상 재개...전문가 "내년 격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가 관세를 유예해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으나 3개월이라는 짧은 협상 기간에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벌이는 지구촌 패권 다툼이 단기간 끝날 문제가 아닌 데다 양국이 민감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를 좁혔다는 징후는 전혀 없이 미봉책만 던져놓은 만큼 언제든 합의가 깨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업무 만찬

에서 회동해 관세율 인상이나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기술 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만 중국으로선 타협이 쉽지 않은 부분이며, 지난 수년간 풀리지 않은 이런 난제를 90일간 해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의 시오도어 불-에이리얼스 분석가는 "양쪽 다 심각한 양보를 하지 않았고 양쪽의 격차

를 고려할 때 실무선에서 합의는 대단히 어렵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파적 변화와 같이 표면상으로만 긍정적이며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당장 양국이 각각 발표한 성명회담 결과 성명부터 결이 다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시 주석이 웰컴의 NXP 인수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성명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적절한 때에 중국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미국 성명에는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성명에는 양국 정상이 모든 관세의 철폐와 상호 호혜적인 합의 도달을 위해 협상을 가속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는 내용만 있고, 90일간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미국 성명의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

상당수 중국 관영매체도 관세 유예에 달린 90일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성명에는 중국이 "아주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농업·에너지·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고 농산물은 즉각 구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상세히 쓰인 데 비

해, 중국 성명은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할 것이라는 정도의 간략한 설명만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아이폰 등 아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제품이나 중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 압박에 놓여 있던 제조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핵심 격차가 좁혀졌다는 징후가 없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3개월간의 협상에서 기술·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얼마나 타협이 이뤄질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수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얼마나 더 늘릴지가 관건이다.

중국이 희생의 길을 열어준 웰컴의 NXP 인수의 진행 상황도 관심사다.

동상이몽 속에 협상이 재개되는 만큼 양국에는 근본적인 태도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앤디 로스먼 매슈스아시아 투자전략가는 FT에 미·중 양국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서 "트럼프는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과 경제·전략적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하며 외부에서 중국의 정치적 구조의 본격 변화를 지시할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한 은행에서 작업자들이 전날 시위 도중 파손된 전면 유리창에 금속 패널을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

방화·파괴...프랑스 "비상사태 고려"

고유가정책 반대 '노란조끼' 폭력시위 비화...110명 부상·건물 6개 소훼

상젤리제 거리 등 파리 중심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격화해 폭력 사태로 번지자, 프랑스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일 오전(현지시간) 개헌문과 상젤리제 거리의 시위 현장을 둘러보고 경찰관과 소방대를 격려한 뒤 총리·내무장관 등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은 내무장관에게 '불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추가 폭력시위에 대비해 주요 도시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에게는 야당 지도자들과 '노란 조끼' 대표단과 회동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시위가 3주째 파리를 중심으로 이어지자 진압을 위해 '비상사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자맹 그리보 정부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심각한 폭력사태로 확산하고 있는 시위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도 비상사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그리보 대변인이 말했다.

지난 1일 상젤리제와 에투알 개헌문 등 파리 최대 변화가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시위는 오후 들어 일부 구역은

쓴 무리가 급속으로 된 막대기와 도끼 등을 들고 거리로 나서 차량과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 사태로 번졌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차에 있던 소총이 도난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프랑스 공영 AFP통신이 전했다. 이 중에 실탄이 장전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시위에는 3만6,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프랑스 내무부가 밝혔다. 이런 규모는 첫 주말 11만3,000명과 두 번째 주말 5만3,000명보다 줄어들었지만, 과격 시위대의 방화로 19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6개 건물이 불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파리에서만 400여명이 연행되고, 11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日 가와사키시, 첫 '혐한 금지' 가이드라인

차별적 언동 시 공공시설 불허·허가 취소 등 '제한'

일본 가와사키시 가와사키시가 지난 2일 재일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혐한 발언 등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연회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행위나 발언들을 의미한다. 가와사키나 오사카 등 재일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극우세력에

의한 혐한 행위나 발언 등 헤이트 스피치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일본 국회는 2016년 5월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 등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만들었다.

또 가와사키시는 지난 3월 공공시설

에서 이런 차별적 언동을 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차별적 언동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신청자에 대한 경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하거나, 크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공시설 이용 불허나 기존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심장 두꺼워지면 치매 위험"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구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해 내보내는 심장 왼쪽 아랫부분인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좌심실 비대가 치매 위험 상승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보건대학원의 페이 노비 역학 교수 연구팀은 좌심실 비대 환자는 다른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약 4%가 좌심실 비대가 있었고 20년 조사 기간에 전체의 약 9%가 각종 치매 진단을 받았다.

좌심실 비대 그룹은 좌심실 비대가 없는 대조군에 비해 치매 진단율이 약 2배 높았다. /연합뉴스

스페인 지방의회 선거서 '反 이민' 극우 정당 약진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난민 유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민 유입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해온 극우 정당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난민포용 정책을 내세우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 주도의 사회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 결과여서 주목된다.

AFP통신은 2일 안달루시아 지방의회 선거에서 군소 정당인 '복스'가 전체 109석 가운데 12석을 얻은 것으로 잠정(개표율 93% 기준)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그냥 놀게 놔 두세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회에서 한 6세 꼬마가 단상으로 갑자기 뛰어 올라와 어머니가 아이 팔을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신축 원룸 매매

신축 원룸
산정능협 1분(코너)

- 1층(상가 1칸)
- 2층~3층(원룸 10개)
- 4층(아파트 35평형) - 고급안집
- 주인 주거하면서 - 월 수익 400만
- ▶ 매가 8억6천(3억,보3천만)

① 산정동(산정공원앞) 원룸 15개-상가1칸
▶ 매가 8억2천만 (보1,800만, 월 540만)

② 월곡동 농협 2분 원룸 → 11개(월수익 510만)
▶ 매가 8억4천만 (보1천500만, 월 2억5천)

③ 산정동 / 산정공원 부영아파트 옆
1층(상가) 원룸, 10개, 4층(안집)
▶ 매가 8억7천 (월 3억, 월 550만)

④ 전대 정문앞(원룸 18개, 안집 1개)
▶ 매가 12억 (월 750만)

010-6670-9800

상가 매매 (수익형 오피)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 23평 (모든업종가능), (주택가능)

■ 공실 없음 (임대 항시대기) (방2개)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8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법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1) 도천동 (토지)
 - 1,373평 (6차선 도로점) (코너)
 - 하남공단 1분
 - 유동단지 삼거리
 - ▶ 감평가 35억 / 최저가 19억6천
- 2) 남구 송하동 (5층 상가건물)
 - 토 138평 건 491평
 - 광주여대 2분
 - (교회, 본사건물 추천)
 - ▶ 감평가 12억 → 최저가 6억8천
- 3) 상무지구 아파트 상가 (1층)
 - 건 35평 (아파트 496세대)
 - (상무지구 메인 도로)
 - ▶ 감평가 16억3천 → 최저가 9억2천
- 4) 북구 중흥동 (상가주택)
 - 토 38평 건 145평
 - 광주역 3분, 금남로5가 2분거리
 -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5백
- 5) 전남화순 전원주택 부지
 - 토 16,982평, 전태산 앞 (광주에서 45분)
 -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010-7384-7800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9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상가/주택/기타

- 1) 광산구 송정동 (상가주택) (공할1분) 토 30평 건 65평
- ▶ 감평가 2억6천 → 최저가 2억6천
- 2)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2층) 23평
- ▶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 3) 광산구 우산동 (4층중 2층) 121평
- ▶ 감평가 14억 → 최저가 9억9천
- 4) 북구 장동동 (주택) 토 180평 건 79평
- ▶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3억2천
- 5) 서구 화정동 서부코아 건물 218평 (노래장 시설 되어있음)
- ▶ 감평가 8억4천 → 최저가 3억
- 6) 북구 문흥동 (7층중 6층 상가) 건물 226평
- ▶ 감평가 14억8천 → 최저가 8억3천
- 7) 수완지구 1층 상가 (50평)
- ▶ 감평가 9억6천 → 최저가 5억4천
- 8)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2층, 118평)
- ▶ 감평가 34억 → 최저가 19억
- 9) 전북전주시덕진구 (5층중 1층상가) (원커피숍운영)
-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직원 모집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 하실 분
- 2) 경매 컨설팅 하면서 수익 내실 분
-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
- 4) 가족같이 일하면서 근무 하실 분

010-6670-9800